

광주체고 천윤영, 차세대 한국 사이클 이끈다

아시아주니어선수권 단체추발 금
귀국 후 양양전국대회 출전
개인추발 등 5관왕 '여고부 최강'
하루 150~200km 혹독한 훈련
체력 뛰어나고 성장세 두드러져



천윤영

천윤영(광주체고·3년)이 대한민국 사이클 차세대 유망주로 성장하고 있다.

3일 광주체육고등학교에 따르면 천윤영은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8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 단체추발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천윤영은 김은송·안영사·김지은과 조를 이뤄 출전한 대회 첫날 단체추발 4km경기에서 4분48초 931로 4분52초에 그친 일본을 여유 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귀국 후 28일까지 열린 2022년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획득했다.

천윤영은 첫날 경기부터 주중목인 개인추발 2km에서 2분30초806으로 대회 신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유니엄경기·4종목 합산(스크래치5km 6위, 템포라이스5km 1위, 포인트16km 1위, 제외경기 8위) 종합 점수에서 1위를 차지, 대회 5관왕에 올랐다.

천윤영은 국가대표 후보 하계훈련에서 하루 150~200km가 넘는 혹독한 도로 훈련량을 소화하는 등 남다른 체력을 과시했다.

그는 2021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등 고교 최강자로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이 대회 여자고등부 스크래치 5km 경기에서 2위 김지은(대전체고)을 제치고 1위를 차지, 개인추발 2km 금메달을 따냈다.

광주체육고등학교 김재안 교장은 "우리나라에 250m 트랙 돛구장시설이 전진선수촌에만 갖춰진 상황과 짧은 적응훈련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 참가해 성과를 냈다"면서 오는 10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체고 천윤영이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8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다. <광주체고 제공>

프로배구 대한항공 한선수 보수 총액 첫 10억원 돌파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을 두 시즌 연속 통합 우승으로 이끈 주전 세터 한선수(37)가 최초로 10억원의 벽을 깼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녀 14개 구단 2022~2023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인 30일, 각 구단의 공식 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한선수는 연봉 7억5천만원, 옵션 3억3천만원을 합쳐 총액 10억8천만원으로 남녀를 통틀어 최고 보수 선수에 등극했다.

아울러 2005년 출범한 프로배구에서 총액 보수 10억원의 벽을 한선수가 처음으로 무너뜨렸다.

한선수의 뒤를 이어 대한항공 정지석(9억2천만원·연봉 7억원+옵션 2억2천만원), 우리카드 나경복(7억6천500만원·연봉 4억5천만원+옵션 3억1천500만원), KB손해보험 황택의·한국전력 신영석(보수 총액 7억5천만원)이 보수 총액 순위 상위 5걸로 이름을 올렸다.

여자부에서는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2년 만에 V리그로 돌아온 김연경(34)이 연봉 4억5천만원과 옵션 2억5천만원을 합한 총액 7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연경 다음으로는 KGC인삼공사 이소영(6억5천만원·연봉 4억5천만원+옵션 2억원), 한국도로공사 박정아(5억8천만원·연봉 4억3천만원+옵션 1억5천만원), 현대건설 양효진(5억원·연봉 3억5천만원+옵션 1억5천만원) 순이다. /연합뉴스

AI페퍼스, 리베로 김해빈 영입

"신생구단서 뭘 기회 기백... 팀에 도움되는 선수될 것"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리베로 김해빈(22·사진)을 영입했다.

AI페퍼스는 3일 "GS칼텍스가 자유신선수로 공시한 김해빈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해빈은 2018-2019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2순위로 IBK기업은행에 입단했고, 2020년 1월 트레이드로 GS칼텍스 유니폼을 입었다. GS칼텍스에 리베로 자원이 풍부해 김해빈은 2021-2022시즌 '수비형 레프트'로 교체 출전했다. GS칼텍스는 2022-2023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을 정비하며 김해빈과 작별했다.

자유계약선수(FA) 세터 이고은을 영입한 뒤 보상 선수로 리베로 김세인을 내준 페퍼저축은행은 김해빈을 영입해 공백을 메웠다.

김해빈은 "신생구단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GS칼텍스 구단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김세인 선수 이적에 따른 리베로 포지션의 공백을 기존 문슬기와 이번에 영입한 김해빈이 잘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해빈은 움직임이 빠르고, 상대 공격의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도 좋아 수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I페퍼스는 2022-2023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선수를 보강하는 등 팀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지난 4월 영입한 레프트 니아 리드(25)는 드래프트 최대로로 뽑히는 선수다. 리드는 키 189cm의 레프트로 2021-2022시즌 브라질 리그 세시 불 레이 바우르에서 뛰며 득점 1위에 올랐다. 한편, AI페퍼스는 순천에서 열린 '2022 순천-도드람배구대회'에 출전한다. 여자부 경기는 순천팔마체육관에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력하겠다"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GS칼텍스 구단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은 "김세인 선수 이적에 따른 리베로 포지션의 공백을 기존 문슬기와 이번에 영입한 김해빈이 잘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해빈은 움직임이 빠르고, 상대 공격의 방향을 예측하는 능력도 좋아 수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I페퍼스는 2022-2023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선수를 보강하는 등 팀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지난 4월 영입한 레프트 니아 리드(25)는 드래프트 최대로로 뽑히는 선수다. 리드는 키 189cm의 레프트로 2021-2022시즌 브라질 리그 세시 불 레이 바우르에서 뛰며 득점 1위에 올랐다. 한편, AI페퍼스는 순천에서 열린 '2022 순천-도드람배구대회'에 출전한다. 여자부 경기는 순천팔마체육관에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리베로 김해빈이 AI페퍼스 유니폼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3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276 페더급 타이틀 매치에서 볼카노프스키(왼쪽)가 홀로웨이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다. /연합뉴스

정찬성이 못 싸운 게 아니었다

UFC 페더급 챔피언 볼카노프스키, 압도적 기량으로 4차 방어 성공

정찬성(35)이 못 싸운 게 아니었다. UFC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34·호주)가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타이틀 4차 방어에 성공했다.

볼카노프스키는 3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아레나에서 열린 UFC 276 페더급 타이틀 매치에서 체급 랭킹 1위 맥스 홀로웨이(31)에 심판 전원일치 3-0 판정승(50-45 50-45 50-45)을 거뒀다.

볼카노프스키와 홀로웨이의 대결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2019년 둘의 첫 맞대결에서는 도전자로 나선 볼카노프스키가 홀로웨이보다 보유했던 페더급 챔피언 벨트를 빼앗아왔고, 2020년 둘의 2차전에서는 볼카노프스키가 판정 논란 속에 1차 방어에 성공했다.

당초 볼카노프스키와 홀로웨이는 올해 4월 UFC 273에서 3차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홀로웨이의 부상으로 정찬성이 대타로 볼카노프스키와 붙었다. /연합뉴스

이 경기에서 볼카노프스키는 정찬성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며 4라운드 TKO 승리를 따냈다.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볼카노프스키는 3개월 전 정찬성을 완전히 잠재운 것처럼 홀로웨이마저 말 그대로 가지고 놀았다.

볼카노프스키는 현란한 풋워크를 앞세운 아웃박스형으로 홀로웨이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고,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라운드마다 유효 타격수에서 압도했다.

경기가 끝났을 때 하도 두들겨 맞은 홀로웨이의 얼굴과 허리가 피로 물들었던 것과는 달리, 볼카노프스키는 이제 막 육타군에 도착한 선수처럼 깨끗한 얼굴이었다.

이번 경기로 볼카노프스키는 페더급(65.8kg 이하)에 대한 적수가 없다는 걸 입증하고 라이트급(70.3kg 이하)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두 체급을 오가며 경기하고 싶고,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원한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우즈, 한달 반 만에 필드로

오늘 개막 아일랜드 프로암 대회 출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사진)가 한달 반 만에 필드 앞에 나선다.

우즈가 출전하는 JP 맥매너스 프로암이 4일부터 아일랜드 리머릭의 어데어 매너 골프코스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비공식 이벤트지만 우즈가 5월 말 PGA 챔피언십 3라운드를 마친 뒤 기권하고 나서 처음 출전하는 대회라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우즈는 한국 시간으로 4일 밤 10시 5분에 1라운드를 시작한다.

특히 우즈는 이 대회에 이어 14일부터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 디오픈에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의 몸 상태나 경기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JP 맥매너스 프로암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우즈는 지난해 2월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후 1년 넘게 대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올해 4월 마스터스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마스터스에서 컷을 통과, 47위에 오른 우즈는 5월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도 출전했지만 3라운드를 마친 뒤 기권했다.

이후 6월 US오픈에는 불참했으며 7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출전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 디오픈은 150회째를 맞아 '골프의 성지'로 불리는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려 우즈의 의욕이 남다르다.

우즈는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린 디오픈에서 2000년과 2005년에 우승했다. 특히 2000년에는 2위에 8타나 앞선 승리를 따냈다.

올해 JP 맥매너스 프로암에는 우즈 외에도 더스틴 존슨, 브라이언 디쇼보, 브룩스 켈카, 폴린 모리카와, 스코티 셰플러, 조던 스피스, 저스틴 토머스(이상 미국), 매슈 피츠패트릭, 저스틴 로즈(이상 잉글랜드),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 윤 람(스페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우즈, 매컬로이, 토머스 등과 같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남은 선수들과 존슨, 디쇼보, 켈카 등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인비테이셔널 시리즈 이적 선수들이 실력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탑건: 매버릭
- 2관 탑건: 매버릭, 고스트랜드
- 3관 범죄도시 2, 브로커
- 4관 헤어질 결심, 범죄도시 2
- 5관 헤어질 결심
- 6관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9관 탑건: 매버릭
- 7관 써니캐플 헤어질 결심, 벵즈 라이브이어, 추라기 월드: 도미니언, 검은 검은, 미친 능력
- 8관 써니캐플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브로커

광주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공연
GAC ART WEEK
일시 : 2022.07.06.(수)-15.(금)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문의 :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